

研究論文

토쿠가와시대(徳川時代)의 무사도(武士道)에 대한 연구 -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을 중심으로 -*

이 희 주**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무사집단의 주종관계와 정치적 통합성 |
| II. 토쿠가와시대에 있어서 지배집단의 형성
무사를 중심으로 | V. 나가는 말 지배층의 구조적 성격과
정치적 통합성 |
| III. 무사층의 규범의식(規範意識) 과
행위양식(行為樣式) | |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토쿠가와시대(徳川時代)의 정치사회에 있어서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을 파악하고 이에 연유한 정치적 통합성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배층이 지닌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은 그 사회의 정치체제나 정치과정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쿠가와시대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은 본래 유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성향을 지니며, 같은 유교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지배층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배층의 존재양식과 내적 연관성을 지니는 문제이기도 하다

토쿠가와시대에는 막부(幕府)를 정점으로 하는 무사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

* 본 논문은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서경대학교, 조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

문에 ‘무(武)’를 근간으로 하는 반면, 조선시대는 군주를 정점으로 한 유자·양반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文)’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층의 존재양식에 따라 이들이 지닌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군신도덕의 규범에 있어서도 토쿠가와시대에서는 ‘군이 군답지 않아도 신하는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를 취하며, 조선에서는 ‘군이 군답지 않으면, 신하는 군을 떠나는’ 형태를 취하는 등, 군신도덕의 규범의식인 ‘충의 양태도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

또한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의 상위성은 그 사회의 정치적 통합성 내지는 역동성의 형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엽 이후 western impact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형태가 양자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의 지배층은 일찍이 화이적 명분론에서 탈피하여 선진을 중국으로부터 서구의 국가로 전이(轉移), 부국강병을 추구한 데 비해, 조선의 유자층은 여전히 동양적 유교의 질서관인 화이론적 명분론에 머물러 대응한 차이점을 보였다.²⁾ 이처럼 지배층의 존재양식은 그 정치사회에 있어서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에서 부국강병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했지만, 일반적인 유교이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다른 특수성을 지녔던 토쿠가와사회를 연구하여 이것이 조선사회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양 시대의 전통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나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넘긴다.³⁾ 이 글에서는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층이 지닌 규범과

1)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 조선과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군신관계의 규범인 충의 내용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조선은 『예기』에서도 언급되는 바와 같이 남편은 외치 아내를 내치인 ‘부부유별’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일본에서는 ‘부부상화(夫婦相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많았던 일본의 정치사회에서 전쟁에서의 역할이 남자에게 부여될 때 가업은 여자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상화’는 일본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문화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토쿠가와시대는 전장이 없는 유일한 시대였지만, 전장의 문화가 관념 속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양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부부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渡辺 浩, 「夫婦有別と夫婦相和」, 『社会文化』 第十五号 東京, 2000年6月, 208~243 쪽

2) 김영자, 「한·청·일 삼국의 초기 근대화요인 비교」, 『한말내서널리즘연구』(청계연구소, 1989), 45~74쪽.

3) 사회과학적 분야에서 유자층의 에토스와 정치사회의 특질에 관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광식, 『新儒學思想과 朝鮮朝 儒教政治文化』(집문당, 2000)를 들 수 있다. 氏는 유자층의 규범의식을 ‘의리론’, 행위양식을 ‘예론’이라는 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사람이 정치의 주도세력이 된 조선

행위의 존재양식 등의 전통적인 에토스(ethos)의 분석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배층 내부에 있어서의 주종관계와 정치적 통합성의 형태를 고찰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성격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선 시대의 지배층의 그것과 대비해 가면서 파악하기로 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에서 무사층이 공가(公家)를 대신하여 권력을 장악하여 지배집단으로 등장한 것은, 미나모토(源氏)의 가문이 당시 교토(京都) 주변의 도적을 퇴치하거나 지방내란을 진압한 공이 거듭되면서, ‘무가(武家)’로서의 명예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카마쿠라(鎌倉)막부를 창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무로마찌(室町)막부, 토쿠가와막부에 이르기까지 무사들은 정치사회의 지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래 무사의 정체성(正体性)이란 전장(戰場)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장에서서의 논리가 이들의 규범의식과 삶의 양식을 규정하였다. 전장에서서의 논리는 크게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명예(名譽)’와 ‘이익(利)’가 바로 그것이다. ‘명예’가 전장의 행위 속에서 주군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규범의식이었다면, ‘이익’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관념이었다. 이에 기반한 ‘용맹(勇猛)’, ‘충(忠)’, ‘정정당당(正正堂堂)’, ‘멸사봉공(滅私奉公)’ 등의 규범의식은 ‘적토(敵討),’⁴⁾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⁵⁾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⁶⁾ ‘할복(切腹)’ 등의 행위양식으로 나타

조 중기 이후부터 통치이데올로기가 더욱 주권주의적 경향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향에서 상황주의적 인식으로의 전환은 실학단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업적에 기반하여 유자층의 규범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이 실제적인 통치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양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실증적·분석적 연구 작업이 진행된 후에는 유자지도(儒者之道)와 무사도와의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며, 이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 4) 토쿠가와시대에는 적토를 행할 경우,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 먼저 상급기관에 알려 허락을 받고 복수를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아우가 형을 가신이 주군을 위해서 복수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하는 장소도 금지구역이 있으며 거듭하여 복수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다. 笠谷和此古, 『武士道その名譽の掟』(教育出版, 2001), 127~134쪽.
- 5) 가신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 폭군일 경우, 가신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군을 강제적으로 폐위시켜, 반성을 하게 한 후 다시 주군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주군이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후계자를 내세운다. 주군을 강제적으로 폐위시키는 것을 ‘押込 おしこめ’이라고 한다(위의 책, 152~163쪽).

났고, 토쿠가와와 정치사회도 무사들의 이러한 규범의식과 행위양식을 통하여 대내적인 정치적 통합을 이룩해 나갔다.

이에 반해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를 위시한 무인(武人) 세력과 정도전을 비롯한 유자(儒者) 집단의 정치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건국세력의 일부가 무인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성향은 유자집단이 주도하는 유교이념의 실현을 내세우는 ‘문치’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정치문화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하에 있었던 역사적 계승에 기인한 면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정치사회는 이러한 유교적 문치의 성향이 이전의 사회보다 더 강하였고, 오백년을 거치면서 무인세력에 의한 정치적 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유자란 유교적 소양을 지닌 자이다. 유교의 기본사상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한 위치(名)를 가지고 태어나며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分), 이러한 명분론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배층도 명분론적 사고에 근거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 즉 ‘유덕자(有德者)’를 이상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행위양식은 유교적 명분론에 의해서 그 시비(是非)가 판단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명분론에 근원한 규범적 실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통치과정을 살펴보면, ‘효’와 ‘충’이라든가 ‘인정(人情)’과 ‘대의(大義)’ 등 여러 규범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때, 지배층간에 이를 둘러싼 갈등양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갈등의 극복은 정치적 통합의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무사집단의 주종관계의 특징인 ‘충의(忠義)’는 ‘봉공(奉公)’과 ‘고은(御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봉공’은 가신들이 주군의 위력(威力)을 유지하도록 타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견제하는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주군의 영토를 관리하는 관리의 역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봉공’에 대한 대가가 ‘고은’이다. 토쿠가와시대는 오랫동안 전쟁(戰場)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었고 ‘충의’란 개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세습적 성향을 띠는 한편 그 대상도 가(家), 번(蕃) 혹은 막부(幕府)로 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6) 결투장에서 복수를 행한 무사가, 상대의 추격을 쫓겨 신분의 위협을 받을 때 근처의 무가의 집에 뛰어들어 보호를 요청할 경우, 주인의 무사는 이를 보호하며, 추격한 자의 인도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관습법이 있었다. 이를 ‘武家屋敷驅込慣行 かけこみ’이라고 한다. 위의 책 103~127 쪽.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에서는 유교의 정치사회에서 보이는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위민(為民)’·‘민본(民本)’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결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의 권위는 ‘위민’·‘민본’에 기본을 둔 천명(天命)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유지층은 궁극적 통치목적인 ‘위민’·‘민본’에 기반하여 주종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 형성되는 기본적인 주종관계의 특성은 ‘의합(義合)’이며 ‘의(義)’의 내용도 ‘위민’·‘민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주를 보필하는 ‘사군(事君)’의 내용도 군주가 천의(天意)인 위민정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인 군주가 행하는 은혜도 군주의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天)을 대신하여 내리는 것이었다⁷⁾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유지층은 정치사회가 유교이념을 통치이념으로서 통치체제 속에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유교이념에 함몰해 가는 성향마저 보여 보편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관념적인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쿠가와시대의 무사층이 현실주의적(現實主義的) realism의 사유양식의 특성을 지닌 반면, 조선시대의 유지층은 보편주의적(普遍主義的) idealism의 사유양식의 특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조선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녔던 토쿠가와시대 지배층의 형성과정, 이들의 규범의식과 행위양식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치적 통합성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토쿠가와시대에 있어서 지배집단의 형성: 무사를 중심으로

‘대정봉환(大政奉還)’⁸⁾을 계기로 정치적 권위가 토쿠가와막부(德川幕府)로부터

7) ‘유덕자군주론(有德者君主論)’의 일반적인 유교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군주란 천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무와 녹을 ‘천직’, ‘천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孟子』 「萬章章句」에 언급되어 있다.

8) 토쿠가와 쇼오군의 정치권력은 천황에게 돌아갈 것이나 토쿠가와와 수장은 그 영지를 지닌 채 국내에서 최대세력으로서 계속 수상의 자리를 지낼 수 있다는 ‘토사의 건백서’에 대해 1867년 11월 마지막 토쿠가와 쇼오군인 요시노부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막부의 이름으로 ‘대정봉환’이 실현되었다. Hall, John Whitney 著 林英宰 譯 『일본사』(역민사 1986), 294 쪽

천황에게로 돌아가기 전까지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세력은 무사집단(武士集團)이다. 무사집단이 일본사에 있어서 지배세력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어떤 도정(道程)을 거쳤던 것일까?

‘무사의 대두(擡頭)’에 대한 기존 연구의 업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사란 헤이안(平安)시대 중경,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일본사회에 등장하였다. 이는 귀족사회가 전문 분업화하는 과정에서, 무사(武事) 또는 무기(武器)를 전문적으로 하여 국가의 군사(軍事)·경찰(警察)의 직무를 담당하는 특정의 사회계층으로서 분출된 것이다. 이들 세력은 그 후에 새로운 군사적 상류계급으로서 각 지방에 널리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이 종래의 문관(文官)적인 정치기능에까지 침식해 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사의 대두’ 모습이다. 또한 이러한 정향에 의거하여 일본사회는 사적무장(私的武裝)에로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⁹⁾

일본의 정치사회는 징병제의 형태가 중앙국가로의 획일화의 성격을 띠지 않고, 각 지방세력이 관할하는 사적 무장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황족세력(皇族勢力)의 약화를 기도하기 위한 책(策)으로서, 성씨(姓氏)를 하사받아 황족으로부터 분리된 미나모토(源氏)의 가문이 당시 교토(京都) 주변의 도적을 퇴치하거나 지방내란을 진압한 공(功)이 거듭되면서 ‘무가(武家)’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카마쿠라(鎌倉)막부를 세워 공가(公家) 세력을 대신하여 전국적인 패권을 잡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적인 무장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통(嫡統)이 아닌 미나모토 일족(一族)이나 미나모토의 우호세력이 재지영주로서 존속하여 지방의 인민이나 토지, 군사력을 장악하는 봉건제도의 형태로 인하여 이러한 사적 무장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게 되었고, 이는 메이지(明治) 이전까지 일본의 사회 구조를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틀로서 유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현상을 지닌 정치사회란 권력층의 군사력의 강약에 따라, 사회의 제현상(諸現象)이 바뀌는 양상을 초래한다. 즉 군사력의 강약에 따라 정치사회의 안정여부가 달라지며, 군사적 능력을 지닌 자가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사회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관념적인 통치이데올로기의 기능보다도 현실적인 군사력을 더욱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9) 위의 책, 88쪽

정치사회의 특징은 무력(武力)에 기반한 위광(威光)¹⁰⁾이 정치적 권위를 이끌어내는 근원이 된다. 이는 통치성의 근원이 천명에 기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교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조선시대의 통치자의 정치적 권위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치’가 행해지는 정치사회에서 무사들의 정치사회적 역할이란, 일상생활에서도 전장(戰場)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배자이며, 토쿠가와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사들은 이러한 역할의 담당자였던 것이다.

III. 무사층의 규범의식(規範意識)과 행위양식(行為樣式)

무사들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규범은 명예(名譽), 용맹(勇猛), 인의(仁義), 이(利), 명성(名聲), 충(忠), 정정당당(正正堂堂)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규범의 존재양식은 전장의 논리에서의 사고의식이 계승된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유교가 변형, 변용되어 무사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준 면도 있다. 전장에서 근원한 이들 규범의 존재양식의 특성을 보면,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명예’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무사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전장(戰場)에서의 가치규범(價值規範): 명예(名譽)

무사들이란 “일반적으로 무예(武芸)를 배우고, 군사(軍事)에 종사하는 자를 널리 지칭하지만, 무사를 무기(武技)를 직능으로 하여 생활하는 직능민(職能民)으로 파악하는 측면에서 보면, 헤이안(平安)시대 후기에 등장하여 토쿠가와시대까지 존속한 사회층”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은 다른 세력으로부터, 주군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토쿠가와(徳川) 정치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위광(威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渡辺 浩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東京大學出版部, 1997), 16~47쪽.

이처럼 본래의 무사의 삶이란, 다른 세력과의 전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무사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자신들의 정체성(正体性: identity)을 확립시켜왔다. 토쿠가와막부가 창립되기 전까지, 그들은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현실에 그대로 노정되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시마바라(島原)의 난(亂)'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없는 토쿠가와시대의 무사들에게는 이러한 전장 속에서의 삶의 정체성이란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관념적·추상적 형태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¹¹⁾

그럼, 무사들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전장 속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는 전장 속에서의 규범의식의 존재방식(存在方式)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사가 전장에서 가장 추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적진(敵陣)에 제일 먼저 뛰어들거나(一番槍: いちばんやり), 적진에서 유명한 적장(敵將)의 목을 제일 먼저 베어오는 것(一番首: いちばんくび)이다. 이찌반아리(一番槍), 이찌반쿠비(一番首)를 위해서는 우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용맹성이 있어야 하며, 게다가 자신의 생명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럼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로운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자신의 용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였다. 이처럼 전장 속에서 추구되는 중요한 가치의식이 명예이며, 명예는 또한 자아를 완성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명예가 손상될 경우 이를 '치욕(恥辱)'으로 여겨, 무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고, 비록 치욕을 준 상대가 상관일지라도 이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명예의 이미지는 용감한 행동을 할 때 드러난다. 용감한 행동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찌반아리(一番槍), 이찌반쿠비(一番首) 이외에도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적(敵)을 많이 죽여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등등이다. 임진왜란 壬辰倭亂 때에는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코를 베어 본국으로 보냈던 예도 있다고 한다.¹²⁾ 이처럼 용감한 행동은 자신의 무기(武技)와 무기(武器)를 기본으로 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용감한 행동이 나타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드러났던 것이다.

11) 渡辺 浩, 『政治思想Ⅱ』(日本放送出版協會, 1985), 31 쪽

12) 藤本久志, 『日本の歴史15 織田・豊臣政權』(小学館, 1975), 372~374 쪽. 渡辺 浩 앞의 책 28 쪽으로부터 再引用.

전장 속에서의 삶이 무사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전장이 없는 일상성(日常性)에서 이들에게 무(武)의 힘을 뺀 삶의 방식을 상급무사들은 하급 무사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급무사들의 노력이 카마쿠라 鎌倉 시대의 『고세이하이시키모쿠(御成敗式目)』을 비롯하여 토쿠가와시대의 『부켓쇼하토(武家諸法度)』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행해졌던 것이다. 그것은 무사들의 명예심을 일상성에서도 지속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무력(武力)의 행사장에서 나타나는 ‘용(猛)’의 기질을 최대한 억제시키려는 상급무사의 끊임없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장 속에서의 삶은 지속되어 일상 속에서도 무사들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으며, 전장이 없는 토쿠가와시대 무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2. 전공(戰功)에 대한 보상(報償): 이(利)

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걸고서 승리를 위해 치닫는 삶에서 무사가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명예 이외에도 현실적인 보상이 있었다. 바로 ‘이(利)’에 대한 인식이다. 전장에서 승리하면 그 대가로 현실적·물질적인 보상인 ‘고은(御恩)’이 따랐다. 전장에서 죽더라도 그 명성이 높아짐과 함께, 자신의 가문은 ‘충신가(忠臣家)’로서 자손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利)’는 자신이 섬기는 주군과의 관계, 즉 주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속에 깔린 가치의식이다. 주종관계 속에서 오로지 ‘이(利)’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 때는 이익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쫓아서 주군도 바꾸며, 또 상급자(上級者)도 전투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부하를 적진(敵陣)에서조차 구한다. 여기서도 오직 ‘용맹(勇猛)’만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며, 주종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용맹’만 갖추어지면 주종관계는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의식이 만연하여 행위양식으로 나타난 시기가 무사의 성립기인 ‘겐페이(源平)시대’라고 할 수 있다.¹³⁾ 카마쿠라(鎌倉)시대에 들어오면, 상층의 지배자들은 이러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止揚)시키고, 내적인 규범을 통하

13) 奈良本辰也, 『武士道の系譜』(中央公論社, 1975), 30쪽.

여 무사들을 자신의 영역 속에 묶어두고자 하였다. ‘주군을 위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충성은 바로 정의감(正義感)’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내적인 규범의식을 짙게 하였다. 즉 혈기(血氣)의 무사에서 인의(仁義)의 무사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힘이 지배하는 정치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막부(幕府)가 약하게 되어 정치사회가 혼란하게 되면, 이러한 내적인 규범인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퇴색하고 다시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정치사회가 혼란하였던 남북조(南北朝)·전국(戰國)시대의 무사들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국시대의 무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카마쿠라시대의 무사들의 행동과 대조하여 ‘바사라(ばさら)’¹⁵⁾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주종관계가 일정하고도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는 토쿠가와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이(利)’의 관념은 내적인 규범의식과 결부되어 자신의 영역을 넘어, 자신의 가(家), 주군의 가(家)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충’의 관념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오로지 주군과 주군의 가(家)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겨 자신과 자신의 가(家)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양식으로까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규범의식이며, 대표적인 행위양식의 하나가 간언(諫言)이었다.

이처럼 ‘이’의 관념과 내재적으로 연관된 ‘멸사봉공’이나 ‘간언’의 존재양식은 ‘천리’라는 도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천리지공(天理之公)’이라 하여 유자층에게 보였던 ‘공’의 개념은 ‘천리’에 합당한 것이었고, 또한 ‘천리’라는 도의를 실천하는 행위양식이 ‘간언’이었다. 이러한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토쿠가와시대의 무사층에게서 보였던 주종관계가 공동운명체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¹⁶⁾, 조선시대의 군신관계는 적어도 이론상으로 도리를 매개로 하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군주에 대한 신하의 행위의 독자성이

14) 위의 책, 37~44쪽.

15) 위의 책, 56쪽.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작, 「일본의 국민정신」, 『정신문화』, 제16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70쪽.

견지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무사층의 행위의 존재양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무사층의 행위양식(行為樣式)

1) 간언(諫言)

간언이란, 윗사람의 잘못을 충고하는 것이다. 전장에서 제일 먼저 창을 들고 적진에 뛰어든다든지(一番倉: いちばんやり), 제일 먼저 적장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온다든지(一番首: いちばんくび)하는 용감한 행동을 할 때, 아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면, 살아서는 현실적·물질적 보상인 ‘고은(御恩)’이 주어졌고, 죽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높임은 물론, 자신의 가문은 ‘충신가(忠臣家)’로서 자손들은 혜택을 입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군을 위한 충성의 대가로 ‘명예’와 ‘이(利)’가 동시에 부여된다.

그러나 간언은 주군을 위한 충성스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좌천(左遷)되거나, 직(職)을 감등(減等)받거나, 역산(逆臣)의 오명을 입게 되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불충가(不忠家)로서 가문이 멸(滅)하고 그 자손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간언을 하는 자는 무사로서의 사명감, 즉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아완성(自我完成)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용맹을 드러내 보여서 그 당연결과로서 주군이나 다른 동류의 무사들로부터 명예를 획득하는 행위양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행위양식이 나올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떠한 의식이 있었던 것일까? 오랫동안 전장이 없는 태평의 시대인 토쿠가와시대에 이르면, 한 주군을 계속 섬기는 후다이(譜代)의 주종관계가 주류를 이루었다. 충의 대상도 주군의 개인적인 인격체 뿐만 아니라, 주군의 가(家), 즉 조직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한 대(一代)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가직(家職)으로 이어지는 ‘충’의 세습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주종관계는 공동운명체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은 ‘멸사봉공(滅私奉公)’에까지 이르는, 즉 ‘공(公)’¹⁷⁾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면, ‘멸사(滅私)’도 불사하는 그러한 의식으로까지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겠다. 사(私: 私的인 個人, 혹은 私家)의 이(利)를

희생시키면서, 진정한 무사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멸사봉공’의 규범의식에 의한 대표적인 행위양식의 하나가 ‘간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사 자신, 좀 더 확대하면 사가의 명예가 주군이나 주군의 가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간언의 형태도 적극성을 띠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방법인 할복을 통해서까지 주군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양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시대 지배층이 유교적 이념을 준거로 하여 형성하고 있는 간언의 존재양식¹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지배층의 행위양식은 그 준거들을 유교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시기별 혹은 정치상황(특히 군권의 조건상황)에 따라 통치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간언의 존재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본래의 유교이념이 항상 그 존재양식의 준거틀로서 작용하였다. 여기서 준거틀로 작용하였던 유교이념이란 기본적으로 ‘삼간불납이거(三諫不納而去)’¹⁹⁾이다.

‘삼간불납이거’란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를 더 이상 군주로 삼지 않겠다는 신하의 의지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하의 자율성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양식이며, 이것은 ‘도리의 실현’이라는 신도(臣道)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 기인하면서도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를 떠나겠다는 신하의 의지에 대한 실천적 행위는, 도리를 실현할 다른 대상인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군주의 가납(可納)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하의 완전한 자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조선시대 지배층이 보였던 간언의 존재양식은 유교문명국의 발상지인 중국과도 차별성을 보인다.²⁰⁾

17) 여기서 ‘공(公)’이란 주군이나 주군의 가문 혹은 번, 막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조구찌 유우즈(溝口雄三)의 ‘공’에 대한 해석한 가운데, 공동체의 수장(首長)에 관련된 것 내지는 그것에 대한 존칭, 또는 공동체의 시설, 소유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의 개념은 수장에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공문(公門), 조정(朝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溝口雄三, 「中國思想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学1 公と私の思想史』(東京大学出版会 2001), 36 쪽

18) 간언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조선시대 간언의 존재양식에 대해서는 이희주, 「조선초기 간언형태와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2002), 65~86 쪽

19) 이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의 표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유교경전에 나오는 논의로는 『論語』 「里仁」篇: 事君數其辱矣에 대한 朱子의 주: 胡氏曰 事君諫不行則當去, 『孟子』 「萬章章」下: 君有過則諫 反復之而不聽則去, 『禮記』 「曲禮」下: 三諫而不聽則逃之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층이 보였던 간언의 존재양식은 조선시대 지배층이 실제 통치과정에서 보였던 간언의 존재양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토쿠가와시대 무사에게 있어서 무사로서의 명예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양식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적토(敵討),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 할복(切腹) 등이다

2) 적토(敵討),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 할복(切腹)

토쿠가와시대 무사가 주군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家)를 멸(滅)하지 않고 명예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행위양식이라고 한다면 적토(敵討),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 할복(切腹)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카케코미를 제외하면 모두가 주군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행위양식이다. 이것은 무사의 행위의 존재양식이 거의가 층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토(敵討),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가 주군을 위해, 그리고 주군의 가(家)를 위해 무사로서의 충성스런 행위를 하여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는 결투장에서 명예를 위해 싸운 자를 추격자로부터의 위협을 지켜줌으로써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적토(敵討)를 행함으로써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전장에서 사람을 죽여 무사로서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전장 속의 삶의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오시코메(押込: おしこめ), 카케코미(懸込: かけこみ)에서 보여지는 명예의 추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정당한 일을 행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이는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논리와는 다른 것으로, ‘정정당당(正正堂堂)’의 규범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장의 삶 속에서 출발된 명예의 규범의식은 일상생활에서 무사들의 또 다른 행위양식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군의 원수를 갚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군의 바르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주군뿐만이 아니라 주군의 가(家)의 보지(保持)가 어려움을 알고서도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결투의 장에서 원수를 갚고 추격의 위협에 있는 자에게 도움이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것, 모두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며 명예

20) 이희주, 앞의 논문, 83~84쪽.

롭지 못한 행위양식이다. 비겁한 행위자로 취급받는 것은 무사로서 치욕적이다. 치욕적인 삶은 무사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자타(自他)에 의해서 인정된 토쿠가와시대의 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치욕을 주는 대상이 비록 주군일지라도 여기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치욕에 대한 거부는 죽음의 양식에까지 나타났는데, 바로 할복(切腹)이다. 할복은 ‘치욕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무사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의 양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존재양식이 효보다 충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자층의 그것과는 상이한 대조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할복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살상함으로서 충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의 존재양식이다. 일반적인 유교이론에 있어서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서 효의 실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할복이란 효보다는 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일본의 전통사회에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은 ‘대효(大孝)’임에 비해 부모에 대한 헌신은 ‘소효(小孝)’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효를 수행해서만 존재하는 것을 내용²¹⁾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문화로 말미암아 효보다 충에 역점을 두는 행위의 존재양식이 무사층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할복뿐만 아니라 무사들의 다른 행위양식도 기본적으로 충에 역점을 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지배층에 있어서 행위의 존재양식은 충보다 효에 역점을 두는 것을 보편화하고 있다. 효와 충의 충돌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복출사(起復出仕)’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나 통치과정 속에서 ‘기복출사’의 문제를 놓고 지배층간의 논란형태가 시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²²⁾은 충보다 효에 역점을 두는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이 정치문화로 정착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사층의 행위의 존재양식과 조선시대 지배층이 보였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쿠가와시대 무사들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은

21) 김영작, 앞의 논문(1983), 69 쪽

22)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기복출사’를 둘러싼 군왕과 신료간의 논쟁은 시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체로 전장의 논리에서 출발된 ‘명예’와 ‘이(利)’의 의식에 기초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식에 따른 행위에 기인하여, 토쿠가와막부(徳川幕府)는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나갔다.

IV. 무사집단의 주종관계와 정치적 통합성

주종관계의 규범인 충의 존재양식의 변화는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적 통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충은 주군을 대상으로 한 규범이지만, 주군의 가(家)·번(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명예와 결부되어 자아를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규범이기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家)의 명예를 지켜주는 내적인 규범으로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지고한 규범의식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충의 내용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면서,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사회가 어떻게 대내적인 통합을 구축해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적 통합은 중앙으로는 막부(幕府)와 가신(家臣), 그리고 다이묘(大名)와의 관계, 지역적으로는 다이묘과 가신들의 관계에 대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종관계로 표현되며, 거기에서는 ‘충의(忠義)’가 중요한 콘셉트(concept)이 된다. ‘충의’란 ‘봉공(奉公)’과 ‘고은(御恩)’으로 형상화(形象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성의 강도(強度)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대가인 고은(御恩)도 높다. 다시 말해서, 토쿠가와시대의 무사들의 가록(家祿)이란, 세대(世代)를 이어 한 주군의 가(家)를 모시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그 가문에 대한 충성도(忠誠度)를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토쿠가와와 가(徳川家) 혹은 그 다이묘를 어느 가문이 오랫동안 섬겨왔는가가 충성도에 대한 측정기준이 되어 거기에 대한 가록과 직(職)이 정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토쿠가와시대에는 이러한 충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사회를 통합해 갔던 것이며, 이것은 ‘봉공’과 ‘고은’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추상적이고도 관념적인 충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의 형태로 정치사회를 통합해 가는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토쿠가와시대의 주종관계는 일본사에서 어떠한 도정(道程)을 거쳐서 형성된 된 것일까? 그것의 시대별 상이성(相異性)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종관계’의 형태는 물질적인 보상이든, 자신의 영토의 안정을 위해서이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이든, 자신의 가(家)를 위해서이든, 아니면 주군과 주군의 가(家)를 위해서이든 다양한 내용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무사의 제 조건(第一条)이 ‘용맹(勇猛)’으로서, 용감한 무사라면, 신분에 관계하지 않고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겐페이(源平)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충성의 대가에 따라 주군을 옮기는 현상, 즉, 더 많은 보수를 바라거나 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군을 옮기는 시대도 있었다. 이러한 무사의 행동은 거리낌 없이 행해졌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도 없었다.

그러나 패권을 잡은 최고 권력의 집단에서는 안정된 권력유지를 위하여 주종관계를 힘이 아닌, 관념적인 ‘충의(忠義)’의 개념으로 묶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은 법의 강제성을 동원하기도 하였는데 전국시대(戰國時代) 1590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주군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린 것이 그 사례이다.²³⁾ 또 한편으로는 전장이 없는 태평시대가 오래 지속됨으로서 주군을 옮길 기회가 적었던 토쿠가와시대에서의 주종관계가 전(前)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도정(道程)을 거치면서 토쿠가와시대의 주종관계는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663년 법적으로 금지되기까지 하였던 순사(殉死)도 고정화된 주종관계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토쿠가와시대의 후기로 갈수록 주종관계는 안정화, 고정화, 함몰화되는 성향이 강하여, 드디어 막말(幕末)에 시사(志士)²⁴⁾를 배출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순사와 시사에 나타나는 충의 형태는, 그 대가가 현실적인 보상이 없이 내면적인 규범의 실천에만 역점을 둔 것으로서, 정치사회를 통합해 가는 또 다른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그럼 주종관계의 중요한 콘셉이 되고 있는 ‘충의(忠義)’의 내용이 토쿠가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3) Hall, John Whitney, 앞의 책, 163쪽.

24) 시사(志士)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가진 사 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충성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무사로서의 명예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무사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이렇게 크게 두 대상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카사야카즈히코(笠谷和比古)는 무사의 사상(思想)과 행동을 주군과 가산(家臣)이라고 하는 주종관계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측면과 개별적인 무사로서의 자아완성, 자기실현을 주제로 하는 측면, 두 가지로 대별해서 정의(定義)를 내리고 있다. 전자(前者)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충의의 개념이며, 후자의 중요한 개념은 명예의 개념으로 특징지우고 있다.²⁵⁾ 그러나 앞에서 무사의 행위양식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토쿠가와시대 무사들의 행위양식은 이 두 축에 바탕하여, 전(前)시대보다도 충의의 대상이 주군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주군의 가(家) 혹은 번(藩)이라는 조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형상화된 '고은'의 대가에서부터 때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없이 무사로서의 명예만을 추구하기 위한 내면적 규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양식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사들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군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무사들이 형성하였던 주종의 관계성은 현실적인 보상 없는 봉공의 형태도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는 주군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바탕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종관계는 힘을 바탕으로 한 속성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도리를 매개로 하여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유교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연유하여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층간에 형성된 주종관계는 조선시대 지배층에서 보여 왔던 주종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군신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지배층은 도리를 매개로 한 결합 혹은 분리의 주종관계의 속성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군신관계의 성향도 시기별, 혹은 군권에 따라 그 존재양식²⁶⁾이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조선시대 정치사회는 유교이념이 정치체제나 정치과정을 규정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도리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가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였다. '도리의 실현'이란 지배층 개인의 수신

25) 笠谷和比古, 앞의 책, 83쪽

26) 군신관계의 존재양식에 대해서는 박충석, 「유교의 정치학」, 『사회과학논집』, 15(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95), 68~70쪽

(修身: 덕의 완성)과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치안(治人 德治)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인이란 위민(為民)·민본(民本)을 근본의식으로 하고 있다. 치인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통치적 권위를 부여하는 천명(天命)도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성격을 지닌 정치사회에서의 군신간의 결합양식은 자연히 유교규범과 민본의식에 바탕한 ‘의합(義合)’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신의합(君臣義合)’이란 군신간의 규범이나 행위의 존재양식이 유교적인 이념의 틀에 의해서 그 관계의 결합·분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양식이 조선시대 군신관계의 결합·분리의 형태를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유교적인 규범 내에서도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군신간에 의견의 충돌이 빈번하였으며, 이러한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사고인식에 근거하여 군신간의 결합을 유지하는가는 정치적 통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층의 주종관계의 존재양식은 조선의 지배층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녔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대내적인 정치적 통합을 이룩해 갔다.

V. 나가는 말: 지배층의 구조적 성격과 정치적 통합성

이상의 검토에 기반하여,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적 통합성이 어떤 양태를 띠고 있는가를 지배층의 구조적 성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이를 조선시대와 대비시키는 것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사회는 통치의 권위가 위광(威光)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녔으며, 무장(武裝)과 고도(高度)의 무기(武技)를 지닌 가문(家門)들 간의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문가들은 가신(家臣)과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통치형태가 ‘무치(武治)’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층의 구조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들 간에 형성되는 주종관계의

27)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또 다른 군신관계의 틀이 이 바로 ‘부자천합(父子天命)’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군신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부자(父子)처럼 의제화(擬制化)하여 인식하는 형태이다.

특징인 ‘충의(忠義)’는 ‘봉공(奉公)’과 ‘고은(御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봉공’은 가신들이 주군의 위력(威力)을 유지하도록 타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주군의 영토를 관리하는 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주군으로부터 내려지는 ‘고은’이다. 전장이 없는 상태로 오래 지속된 토쿠가와시대에서의 주종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세습적 성향을 띠는 한편, 그 대상의 영역도 가(家), 번(藩), 혹은 막부(幕府)라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종관계란 섬겨지는 대상과 섬기는 대상만이 관계의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에서는 유교의 정치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위민(爲民)·민본(民本)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유교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서의 충(忠)의 내용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는 유교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하였기 때문에, 토쿠가와시대와는 달리 정치적 권위가 천명(天命)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천명은 위민·민본의식에 기본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교의 정치사회론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에서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민·민본의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통치층은 이러한 정치사회를 달성해야 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책무가 있었고, 또한 이를 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자이며, 이러한 사고의식에 의거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층의 구조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들 간에 형성되는 기본적인 주종관계는 ‘의합(義合)’이었고, 여기서 ‘의(義)’라고 하는 내용은 유교의 정치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의식이며, 그 속에 내재하는 충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충의 내용은 위민·민본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봉공(奉公)’이었고, 군(君)을 위해 일하는 봉공도 군주 개별적인 인격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君)이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君)이 행하는 고은(御恩)도 군주의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君)이 천(天)을 대신하여 내리는 것으로서 ‘천직(天職)’ ‘천록(天祿)’으로 표기되기

도 하였다.

이처럼 토쿠가와시대의 통치층은 조선시대의 통치층의 그것과는 상위(相違)한 구조적 성격을 띠고서 이에 연유한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도 조선시대의 지배층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정치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유양식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토쿠가와시대의 지배층은 전장 속의 윤리인 명예·용맹·정정당당·가(利) 등의 가치규범이 일상성(日常性)에서도 그대로 전승되거나 때로는 변형되어, 순사(殉死), 할복(切腹), 오시코메(おしこめ), 카메코미(かけこみ), 그리고 공동운명체적인 인식하에서의 적극적인 간언 등등의 행위양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으로 말미암아 무사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실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Realism**이 강한 사유양식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유교적 소양을 지닌 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사회가 유교적인 통치이념을 정착해 가는 통치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오히려 유교적인 이념에 함몰해 가는 성향마저 보여, 보편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관념적인 규범이나 행위양식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효와 충의 규범이 충돌할 때, 국가경영의 참여자로서 충의 규범을 택하기 보다 가족규범인 효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기복출사’에 대한 군신간의 충돌양상이 적어지는 경향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토쿠가와시대의 정치사회와 비교하여 볼 때 보편주의 성향이 강한 정치사회의 특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쿠가와시대는 조선사회와 비교하여 통치층의 구조적 성향의 상위성에 따라, 지배층의 규범과 행위의 존재양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회의 대내적인 통합도 조선시대와는 다른 양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은 19세기 외부세력의 침입에 의한 대내적 통합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통치이념의 기반 없이 위광(威光)에만 의존하여 지배력을 유지한 토쿠가와 막부는 현실적인 위력(威力)을 잃자 바로 붕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조선의 유자들은 여전히 유교적 통치이념의 보편성·관념성을 가지고 현실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행위양식의 한계를 노정시켰던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禮記』, 『朝鮮王朝實錄』

姜光植, 『新儒學思想과 朝鮮朝 儒教政治文化』, 集文堂, 2000.

김영작, 「일본의 국민정신」, 『정신문화』 제6 호 1983.

김영작, 「한·청·일 삼국의 초기 근대화요인 비교」, 『한말내셔널리즘연구』 성남 청계연구소 1989, 45~74쪽.

朴忠錫, 「儒敎의 政治學」, 『사회과학논집』 제15 집, 1995, 68~70쪽

이희주, 「조선초기 간언형태와 권력구조 ‘三諫不聽則去’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 집4 호 2002. 65~86쪽.

Hall, John Whitney 著, 朴英宰 譯, 『日本史』, 서울: 역민사, 1986.

溝口雄三, 「中國思想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学1 公と私の思想史』,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1.

奈良本辰也, 『武士道の系譜』, 東京: 中央公論社, 1975.

渡辺 浩, 「夫婦有別と夫婦相和」, 『社會文化』 第十五号 2000, 208~243 쪽

渡辺 浩,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渡辺 浩, 『政治思想II』,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昭和60.

笠谷和比古, 『武士道その名譽の掟』, 東京: 教育出版 2001.

● 투고일 : 2005. 4. 20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무사도(warrior-spirit), 주종관계(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명예(honor), 이(利)(returns), 충(loyalty)